



코로나19, 그 어려움의 시간을 견디어 가는 사람들...



■ 현지 상황

필리핀 내에서도 수도 마닐라와 근접한 앙헬레스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아 팬데믹 초반부터 강력한 락다운(지역 봉쇄정책)을 시행해왔는데, 이에 만 15세 미만 및 65세 이상의 외부 출입이 아직 까지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대부분의 엄마들은 실직했고, 2년 가까이 거의 구급에 가까운 생활을 이어 오다 보니, 한창 뛰어 놀아야 할 아이들은 매우 지쳐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셉이네 집 마당 앞,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구멍가게”

오후 3시. 온라인 수업을 마친 요셉이(LEE JOSEPH VILLAWEVA)가 허겁지겁 뭔가를 챙겨 밖으로 나갑니다. 후다닥 뛰어 도착한 곳은 얼마 못 간 집 앞마당. 필리핀에서 한해 중 가장 더운 5월 한낮의 땀별이지만 그래도 큰 나무 밑 한 그늘진 곳에 자리 잡은 평상 위에 손으로 조물조물 보따리 속의 물건들을 진열합니다. 여기는 바로! 열네 살 꼬마 사업가, 요셉이네 사리사리 스토어(Sarisari Store)입니다.

■ 엄마는 자택 콜센터 근무, 중학생 아이는 집 앞에서 문구류 판매

요셉이 엄마, 에이프릴은 집에서 온라인 콜센터 안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엄마를 닮아 착실한 요셉이(14세)는 이 시기 뭐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 이 사리사리 스토어(구멍가게)를 열었습니다. 판매 물품은 스티커에서부터 빗, 반지, 동전 지갑 등 다양한데, 이중 한국 아이돌 BTS 사진이 아주 인기입니다. 요셉이는 이것들을 먼저 온라인에서 저렴하게 구입한 뒤 오프라인에서 이웃들에게 팔며 일정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 메신저 코로나19 대응 특별 사업 >

양헬레스 센터 코피노맘 자립 지원, ‘사랑의 씨앗 심기(Love Seed Planting Movement)’

■ 선(先)지원 후(後)상환 방식

양헬레스 센터에서는 6월부터 이러한 생계지원을 희망하는 가정들을 모집하여 각각 6,000~12,000페소(한화 약 15~30만원)의 초기 자본금을 지원한 뒤, 추후 판매로 생긴 수익으로 상환해 나가는 방식의 새 자활 지원을 시작 하였습니다. 이번에 지원받게 되는 가정은 총 12가정(아리아나, 존&제임스, 켄지, 마테오 리, 작 나단, 저스틴 리, 야곰, 김천사, 존 테렌스, 유나&우진, 사이몬, 야나)로 이들을 통해 오픈되는 가게들 또한 다양합니다.

■ 생필품 판매에서 길거리 음식점 오픈까지 다양

학용품, 약세서리, 의류 등 다양한 생필품에서부터 바비큐, 국수 등 길거리 음식에 김밥, 김치 등 한국 음식을 판매 하는 가게까지 있다고 하니 당장이라도 가보고 싶어집니다. 물론 제대로 된 가게 모습을 갖추진 못했을지라도 암담한 상황 속, 원가를 해보려 노력하는 이들의 열심과 진심에, 가슴 찡한 격려를 보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절망의 자리에서 일으키는 소중한 희망의 씨앗이 되길, 또한 자립을 위한 귀한 훈련의 시간이 되길 응원합니다!

■ ‘사랑의 씨앗 지원금’ 통한 가게 오픈 과정



1. 지원금을 받고 서약서를 작성한 작나단네 가정



2. 사리사리 스토어로 변신중인 집 앞 가게터



3. 판매할 물품 중 빠진 건 없나 꼼꼼하게 확인!



4. 아기자기하고 예쁜 작나단네 식료품 가게 오픈!



< 메신저 코로나19 대응 특별 사업 >



빗자루, 바구니 등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존테렌스네



건강하고 깨끗한
홈메이드 음식 판매를 시작한
유나&우진 가정



생필품 판매 지원금을 받고
활짝 웃는
저스틴리 가정



보기만해도 먹음직스런
꼬치 장사를 시작한
마테오 리 가정



따끈따끈하게 조리한
소고기 국수 담느라 분주한
김천사네



비대면 영상 수업으로 한글학교 개강! “이제 한국어로 제법 의사소통할 수 있게 되었어요!”



비대면 상황 속 영상으로 함께하는 시간

팬데믹 상황이 심각해지며, 작년 연말에는 매년 한해 중 가장 큰 행사로 함께 모였던 성탄 행사도 갖지 못한 채 각자의 집에서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도 영상으로나마 다양한 행사를 열어 아쉬운 마음을 달랠했는데, 그중 한 가지가 12월에 시행한 성경 암송대회로, 총 33명이 참가하며 참여도가 높았는데, 각자 자리에서 암송 영상을 보낸 후, 이를 완수한 이들에게는 도서상품권 등 풍성한 선물이 전달되었습니다.

온라인 한글 수업 실시

또한 올 3월부터 5월까지 매주 토요일 온라인으로 한글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초급과 중급, 2개의 레벨로 나눠 총 28명이 참여한 학기에서, 참가자들에게는 인터넷 연결망을 위한 소정의 통신료가 지원됐습니다. 온라인 영상 수업은 6월 한 달간 재정비 기간을 거친 뒤, 7월에 다시 열렸는데, 이번 학기에는 영어 및 악기 수업(우쿠렐레)도 추가될 예정이라고 하니 더욱 기대가 됩니다.



교재와 함께 수업 진행방식에 대해 듣고 있는 시호



출석 체크로 수업을 시작하는 최주영 선교사



새 센터로 이사한 세부 메신저 센터

“깨끗하고, 보고 싶은 책들이 가득한 센터에 매일 오고 싶어요!”



■ 더욱 가깝고 깨끗해진 세부 센터

지난 5월, 세부 센터가 새로운 장소로 이전했습니다! 2년 가까이 장기화 되고있는 코로나 팬데믹 속 많은 한인 및 관련 업체들이 갑자기 필리핀을 떠나게 되었는데, 이 시기를 활용해 오히려 세부 센터는 조금 더 쾌적하고 넓은 장소로 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총 2층 규모의 새 센터는 이전에 한인이 베이커리로 사용하던 곳이라 깨끗하고 시내 접근성도 좋아, 무엇보다 아이들이 오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 도서관 형태로 지어져 영어, 한글 수업 등 진행

세부는 팬데믹 초반에 엄격한 봉쇄를 시행한 탓에 확진자가 타지역 보다 적어 아이들의 이동이 자유로운 편인데, 오랜 기간 집에만 있어 답답했던 아이들이 센터로 와서 머무는 시간이 늘고 있습니다. 센터는 벽면이 책장으로 둘러싸인 도서관 형태로 영어원서 및 동화책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들로 가득합니다. 공부방 수업은 오전, 오후 5개 소그룹으로 나눠 그룹별로 진행하며, 지역별 차량 운영을 통해 안전하게 오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외국어, 동화 등 다양한 도서가 구비되어 있는 세부도서관



수업의 시작과 마무리를 기도로!(마스크도 철저히!)



늘 궁금한 신애 소식

“이제는 동생들 공부까지 도와주는 어엿한 열여섯 청소년이랍니다!”



“어느덧 열여섯, 중학생이 된 신애”

2017년 KBS 1TV <다큐 공감>에 소개되어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12살 꼬마 신애가 어느덧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그새 머리를 많이 길러 더욱 여성스러워졌는데, 밝고 따뜻한 마음은 그대로입니다.

“메신저 세부 센터의 자랑스런 장학생!”

열여섯 신애는 메신저 세부 센터의 장학생으로 꾸준히 장학후원을 받고 있는데, 작년에 또래 코피노 친구들인 요한이(12세), 지수(15세)와 같은 학교로 전학을 가서 서로 의지하며 즐거운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동생들 공부도 가르쳐주는 믿음직한 선배”

신애는 거의 매일 센터에 와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요즘은 동생들 공부도 가르쳐주는 믿음직한 선배가 되었습니다. 생일에는 친구들과 센터에서 파티도 하고, 학교 온라인 수업도 늘 센터에서 들을 만큼 센터를 좋아하고 편하게 생각합니다.

“안과 검진도 정기적으로!”

어린 시절 치료 시기를 놓쳐 실명에 가까운 오른쪽 눈 대신, 시력이 남아 있는 왼쪽 눈을 교정하는 안경을 정기적으로 교체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 사용이 늘어서 인지 시력이 더욱 악화돼 가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신애의 건강을 위해 모두 기도 부탁드립니다!





< 특별후원 보고 >



여기, 당신의 마음이 있습니다.

벌써 7년째 메신저를 통해 운동화 수천 켤레를 후원하고 계신 이태경 대표 (경주 모다아울렛 S마켓)님의 특별한 사랑이 전해지는 날입니다.

설레는 맘으로 눈앞에 알록달록하게 놓인 유명 브랜드의 운동화를 하나씩 신어보는 아이들.



무릎을 꿇고, 헤어져 헐떡이는 슬리퍼 대신 요즘 유행하는 구멍 뚫린 새 샌들로 바꿔주시는 현지 사역자님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아이의 두 어깨가 괜히 부끄럽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발에 꼭 맞는 예쁜 새 신발에 눈을 떼지 못합니다.



후원자, 후원 아동, 그리고 메신저. 그들의 특별한 만남이 있는 곳, 바다 건너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 전해진 그 사랑이 다시 꽃처럼 예쁜 아이들의 미소로 피어납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당신의 사랑도 있습니다.**





공지사항

1. 내년 초에 발급되는 2021년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분들이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최초로 신청하지 않으셨던 분들은(주민등록번호 전체기입 필요)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2. 필리핀 메신저센터 도서관에 비치할 영어책과 온라인 수업을 위한 노트북 등을 후원해주실 수 있는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마음을 모아주세요

1. 한국과 필리핀, 전세계를 뒤흔친 코로나19 감염증의 해결과 회복을 위해
2. 필리핀 각 지부(양헬레스, 세부) 센터 사역자님들의 건강과 안전, 사역을 위해
(양헬레스 - 조근목, 최주영 선교사님, 세부 - 김정석, 유희선 선교사님)
3. 현 팬데믹의 특수 상황에 맞춰 사역을 지혜롭게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양헬레스 - 한글, 악기 등 온라인 수업 및 생활 자립 지원
세부 - 도서관 및 소그룹 스터디, 엄마들 바비큐 판매 사업 착수)
4. 1만원 정기후원자들이 더욱 늘어나 동역함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후원계좌

1. 신한은행 100-025-948669 / 예금주: 사단법인 메신저인터내셔널
2. 외환은행 630-272206-458 / 예금주: (사단)메신저인터내셔널